

문장 부호의 중요성과 우리의 현실

이익섭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우리 맞춤법은 이제 제 궤도에 올라 극히 일부에서의 혼란을 제외하고는 원활히 움직여 가고 있다. 거기에 비해 그 맞춤법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는 문장 부호, 또는 구두점(句讀點 punctuation) 방면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령 다음 예문에서 문장 부호를 찍은 쪽이 맞는지 안 찍은 쪽이 맞는지를 묻는 문제를 냈다고 하자. 어느 쪽을 정답으로 할 것인지 쉽지 않고, 만일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하여 채점을 하였다면 분란이 일 것이 분명하다.

- (1) ㄱ.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 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 (2) ㄱ.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
 - 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

앞의 예문 중 (1)의 쉼표(comma)는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

만이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이 문장의 구조나 의미를 더 명쾌하게 해 주는 기능이 별로 없다. 그래서일 터인데 비록 이 경우가 문장 부호 규정에서 쉼표를 찍으라고 한 규정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대개의 경우 (1)처럼 쉼표를 찍지 않는 쪽을 택한다.

한편 (2)의 인용문 안의 마침표(period)는 좀더 미묘하다. 이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맞춤법 규정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어 지금까지 혼란을 거듭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때 철저히 마침표를 찍는다. 맞춤법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한글 맞춤법」의 예문에 마침표가 찍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런다고 한다. 즉 「한글 맞춤법」에는 다음 (3)에서처럼 마침표를 찍은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3)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런 예문은 이 방면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취한 조치였을 뿐 어떤 구속력(拘束力)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그것은 임시방편이었으면서도 후술하다시피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현재 이름 있는 출판사에서 간행되는 책에서는 현명하게도 이 경우 다음 예문 (4)에서 보듯이 마침표를 찍지 않고들 있다. 말하자면 관(官)의 우(愚)를 민(民)에서 앞장서서 바로잡아 가는 경우인 것이다.

(4) ㄱ. 우리가 흔히 듣는 “인도를 내놓을지언정 세익스피어는 안 내놓겠다”는 칼라일의 말은 …(피천득, 『인연』, 샘터사)

ㄴ. 김홍집은 “어떤 수단으로 일을 도모하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유영익, ‘김홍집’, 『한국사 시민강좌』 31, 일조각)

ㄷ. 내가 “이 선생은 밝고 경쾌한 시를 좋아하시는 편이군요”라고 하였다. 더니, 이 교수는 “그런가요? 제가 워낙 단순 사고형이어서요”라고 한다. (이병한,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읽는 한시 명편』 1, 민음사)

- ㄹ. 하도 오래, 하도 싱구이 대문을 두드리고 “기봉아, 나다 나” 하고 이름까지 대므로 아내가 마지못하여 나가보았다.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작과비평사)
- ㄴ. “그럼 지금 강에 다리가 없어 걱정이니 네가 귀신을 동원해서 다리를 놓아라” 해서 하룻밤 사이에 돌다리를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백, 『한국사를 보는 눈』, 문학과지성사)
- ㄷ. 완당은 소치의 그림을 평하여 “압록강 이동(以東)에 소치만한 화가가 없다”고 하였고, 소치는 완당이 제주도 유배 갔을 때 전후 세 번이나 찾아가서 몇 개월씩 함께 지내곤 했다. (유홍준, 『완당 평전 1』, 학고재)

채점자들은 관(官)의 권위를 앞세워 (2ㄴ)이 정답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권위주의에 갇혀 있을 정도로 후진적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꽤 오랫동안 ‘고등학교’를 ‘고등 학교’로 띄어 써 왔다. 국어사전마다 ‘고등학교’를 명사라고 하면서 한 단어로 올려놓았음에도, 그리고 맞춤법 규정에도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다시 말하면 “한 단어는 붙여 쓴다”는 명문(明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문>에 ‘고등 학교’처럼 띄어져 있다고 해서¹⁾ 이상한 고집을 부렸던 것이다. 이제 다행히 그것은 바로잡힌 듯하다. 그런데 아직 인용문 안의 마침표 문체에 대해서는 미망(迷妄)을 못 벗어나고 있다.

2

우리는 그동안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 때마다 대개 문장 부호도 함께 다루어 왔다. 즉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부터 「한글 맞춤법(1989)에 이르기까지 으레 문장 부호에 대한 규정도 부록의 형식으로라도 실어 왔다.

1) 국어사전들도 표제어 및 예문들에서 띄어 쓰고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맞춤법의 다른 분야에 비하면 그저 구색을 갖추려는 정도의 소략(疏略)한 모습의 것이었다. 특히 초기의 것은 간략하기 그지없는 것이었고, 그나마 1940년도의 개정판(281판)에 와서야 크게 확충되었는데 그 결과도 결국은 예문 하나 없이 짤막짤막한 규정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의 아무런 길잡이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초라하고 비현실적인 모습의 것이었다.

즉 이 때 23개 항이 추가되어 총 39개 항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백분율표(%)를 비롯하여 온도의 도수 등을 나타내는 동그라미나 수학에서 쓰는 곱호표(·)까지 들어 있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것은 엄격히 문장 부호 규정이 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그래서인지 이 부분의 제목도 ‘문장 부호’가 아니라 ‘부호’였다). 그런가 하면 ‘그침표’, ‘머무름표’, ‘쉬는표’ 등의 규정을 보면

(5) 그침표 : 한 문장이 대체로 끝나면서, 다음 문장과 의미상 연결됨을 보일 때 쓴다.

머무름표 : 의미가 좀 중단되므로 읽을 적에 잠간 쉬어 머물러야 할 자리에 쓴다.

쉬는표 : 의미가 조금 중단되므로 읽을 적에 잠간 쉬는 것이 좋을 자리에 쓴다.

와 같이 되어 있는데 예문 하나 없는 이들 규정으로써 세 종류의 부호를 어떻게 구별해 쓰라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이들 중 그침표는 colon, 머무름표는 semicolon, 쉬는표는 comma에 대한 규정인데 colon과 semicolon을 무비판적으로 국어에 도입한 것도 당시 문장 부호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엉성하고 비현실적이었지를 엿보게 한다.

이러한 규정이 사문화(死文化)될 수밖에 없을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라 하겠는데(그래서인지 1980년도판부터는 이 부록이 아예 빠지기 시작하였다), 해설서(가령 이희승,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 등에서 이 문장 부호 규정

에 대한 해설을 붙인 일이 한번도 없었던 것도 이 규정의 이러한 비현실성에 연유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한글 맞춤법」(1989)에 와서 상당한 수준으로 확충되어 국어 문장 부호 규정이 한 단계 높은 모습을 갖추게 되긴 하였다. 이 중간 단계로 문교부에서 부실한 문장 부호 규정을 보완한 편수 자료를 편찬하여 그동안의 문장 부호 사용이 얼마간 질서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규정은 이 규정에 크게 의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교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우리는 문장 부호에 관한 한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다고 해야 옳을 듯하다. 무엇보다도 문장 부호는 맞춤법의 다른 분야에 비해 이렇다할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1989년 「한글 맞춤법」을 제정할 때만 하여도 그랬다. 다른 쪽에 대해서는 몇 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도 문장 부호 쪽은 단 한 차례도 따로 진지한 논의를 한 기억이 없다.

그런 것을 두고 무슨 금과옥조(金科玉條)인 양 높이 떠받드는 것은 우리 후진성의 일면일 것이다. 더욱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규정을 우발적인 예문에 의거하여 고집을 부리는 일은 무모하기 그지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장 부호가 그리 허술한 부분이 아니라는 인식을 새로이 하고 맞춤법의 다른 분야에 기울였던 정성을 여기에도 쏟아야 할 것이며, 그로써 참으로 실용적이고 정교한 새 문장 부호를 제정하여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우리와는 달리 가령 영어의 경우는 문장 부호에 대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른다. 맞춤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사전에 의거해서 관행(慣行)을 따르면서도 문장 부호에 대해서는 세세(細細)한 부분까지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가령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4판, 1993)을 보면 구두점에 대한 규정이 136개 항에 걸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쉼표(commas)에 대한 규정만도 59개 항에 달한다. 논문작성법류의 문헌들 대부분이 그러한

데 그중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보아도 그 치열성을 엿볼 수 있다.

한 예로 dash의 경우를 보면 우선 그 길이부터 en dash, em dash 2-em dash, 3-em dash 등으로 세분하고 어떤 때 어떤 길이의 것으로 쓰라는 규정을 자세히 베풀고 있다. 물론 이것들은 하이픈과 다시 구분된다. 가령 New York-London flight에는 en dash를 쓰지만 tax-payer와 같은 복합어에는 하이픈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것뿐이 아니다. 우리는 괄호를 열 때 한 칸을 띄워서 할 것인지 바로 붙여 할 것인지 따지지 않지만 그것도 반드시 한 칸을 떼도록 하고 있고, 뭐와 뭐 사이는 얼마를 떼라는 등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콜콜한 데까지 정성을 들이고 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자. 다음 예문 (6)과 (7)은 영어에서 관계절을 비롯한 수식 요소가 제약적인 기능을 가지느냐 않느냐에 따라 쉼표의 선택을 달리 한다는 것을 보이는 예다. 제약적(restrictive)이나 비제약적(nonrestrictive) 이냐는 그 요소가 그 문장의 의미 형성에 필요불가결(essential)한 부분인가 아닌가를 뜻하는 것으로 영어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쉼표를 찍지 않고 후자의 경우는 그 앞뒤에 쉼표를 찍는 것을 엄격한 규칙으로 삼고 있다. 다음 예문 (6)은 밑줄친 부분이 없으면 문장의 의미가 사뭇 달라져 그 때문에 쉼표를 찍지 않은 경우들이며, 예문 (7)은 밑줄친 부분이 없어도 문장 전체의 의미가 별로 손상을 입지 않는 경우로서 그 때문에 쉼표를 찍은 예들이다.

- (6) ㄱ. Some states retest drivers over age 65 to check their driving competence.
- ㄴ. The Elizabeth Taylor who wrote numerous stories and novels is not Elizabeth Taylor the actress.
- ㄷ. The books that are required reading for the course are placed on reserve in the library.
- (7) ㄱ. My parents, who are both over age 65, took a defensive driving course last year.

- ㄴ. The British writer Elizabeth Taylor, who wrote numerous stories and novels, is not the actress Elizabeth Taylor.
- ㄷ. These books, which are placed on reserve in the library, are required reading for the course.

사실 국어에서도 쉼표 하나가 후술하다시피, 마치 받침 하나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반듯이’와 ‘반드시’의 두 다른 단어를 만들어 내듯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밀하게 규정에 반영하지 못하여 왔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때도 없이 불필요한 곳에 쉼표를 찍어 대곤 하여 오히려 쉼표가 독해(讀解)에 방해를 일으키기조차 하였다.

다음의 경우는 어떤가. 실제로 우리가 글을 쓰면서 다음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 (8) ㄱ. 우리말의 ‘ㄱ, ㄷ, ㅂ’ 등의 소리는 폐쇄음이다(전통적으로는 흔히 파열음이라고 하였다).
- ㄴ. 우리말의 ‘ㄱ, ㄷ, ㅂ’ 등의 소리는 폐쇄음이다. (전통적으로는 흔히 파열음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괄호 안 문장이 한 문장 안에 내포 형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문장이 끝난 다음 독립적으로 이어질 때 마침표를 어떻게 찍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영어에서는 엄격히 규정을 세워 두고 있다. 그 규정과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Chicago Manual*: 162).

- (9) When parentheses or brackets are used to enclose an independent sentence, the period belongs inside. When enclosed matter comes at the end of an including sentence, the period should be placed outside the parentheses or brackets.

- (10) ㄱ. Frorelli insisted on rewriting the paragraph. (I had encountered this intransigence on another occasion.)
 ㄴ. Poncifall looked at me with a desperate expression (Erika, it seems, had dropped a ring into his hand as she left the room).

이를 국어에 적용시켜 보면 대개 앞의 예문 (8)의 경우는 (8ㄱ)이 맞을 것이며, 다음 예문 (11)과 (12)에서처럼 구별하여 쓸 수 있을 법하다. 어떻게 문장 부호 규정이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까지 미쳐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11) ㄱ. 혼인한 부부는 신부의 집에서 살기도 했고 신랑의 집에서 살기도 했다(이는 조선이 시가살이 사회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ㄴ. 이때의 장서각 독서는 성삼문과 함께 한 것으로 추정된다(『영조실록』 26년 9월 8일자 참조).
(12) ㄱ. 이 『천자문』은 원래 한 고서(古書)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던 것인데 그가 이 문고에 기증한 것이라 한다. (이 이야기는 지난해에 이 문고 김 실장이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ㄴ. 아래에서는 우리말의 호칭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경어법의 전반적인 모습은 3장에서 다룬다.)

앞에서 논의한 인용문 끝의 마침표에 대해서도 영어에서는 명쾌히 규정을 해 두고 있다. 즉 그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지 말라고 뜻을 박고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간 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인데 괄호로든 인용문 부호로든 내포된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찍지 말도록 엄명(嚴命)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Chicago Manual*: 159).

(13) A period should be omitted at the end of a sentence that is included within another sentence unless the included sentence is the final element and is not enclosed in parentheses or brackets.

(14) ㄱ. The snow (I caught a glimpse of it as I passed the window) was now falling heavily.

ㄴ. Gilford's reply, "I do not trust the man," was unexpected.

ㄷ. Gilford said smugly, "We never really trusted the man."²⁾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침표는 한 문장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보여 주는 부호다. 우리가 비록 문장을 끝내는 데 쓰이는 종결어미, 즉 문말어미(文末語尾)가 쓰인 문장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하는 것도 마침표의 그러한 기능 때문일 것이다.

(15) 인물 잘 낫겠다, 학벌 좋겠다, 덕망 높은 부모님 구존해 계시겠다, 건강이 나쁘거나 하나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문 (13)이나 (14)의 괄호 안 문장이나 인용문은 그 자체로는 완결된 문장이지만 더 큰 문장 안에 일종의 삽입절로 삽입된 문장이므로 말하자면 마침표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내포절의 경우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포절의 성격을 헤아려 보면 매우 타당한 조처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 조처는 현실적으로 더 큰 호응을 얻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 마침표가 찍혀 있는 쪽이 분명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 글의 흐름을 차단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2) 그러니까 여기의 마침표는 인용문에 찍은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전체에 찍은 마침표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마침표를 따옴표 안에 찍는 것은 역시 그쪽 규정에 의해서다.

- (16) ㄱ. 재래식 시골 뒤간이(화장실이란 말은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안채와는 떨어진 입구에 있었다.
 ㄴ. 재래식 시골 뒤간이(화장실이란 말은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안채와는 떨어진 입구에 있었다.
- (17) ㄱ. “중국에는 ‘나무도 뿌리가 있는 쪽으로 잎을 떨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귀향의 감회에 젖었다.
 ㄴ. “중국에는 ‘나무도 뿌리가 있는 쪽으로 잎을 떨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귀향의 감회에 젖었다.

영어의 경우는 인용문의 경우 마침표를 안 쓰는 대신 쉼표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³⁾ 이는 영어의 구조에서 필요한 조처일 것이다. 우리는 마침표를 빼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출판사들이 이 길을 택하는 것도 그만한 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일 것이다.

문장 부호의 관행(慣行)은 오랜 경험을 통해 같고 닳인 결과일 것이다. 괄호 안 문장이나 삽입절로서의 인용문의 경우 마침표를 찍지 말기로 한 것도

3) 앞의 (13)는 마침표를 쓰지 말라고만 하고 쉼표를 찍으라는 말은 없는데 이때 쉼표를 찍는 것은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음을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를 명시적으로 말한 예도 있다.

- (i) If the quoted sentence is included within another sentence, its terminal period is omitted or replaced by a comma. (*Chicago Manual*: 160)
- (ii) The final period of quotation changes to a comma when the speaker tag follows:
 “A little rebellion now and then is a good thing,” Thomas Jefferson wrote to James Madison in 1787. (Levin 1991: 419)
- (iii) a. “The U.S. trade deficit is expected to reach record levels this year,” the *Wall Street Journal* noted.
 b. “Thank you,” replied Kelly, opening the car door and sliding into the front seat. (Reinking et al. 2002: 685)

앞 예문 정도만 검토해 보아도 그러한 경험을 통한 한 예지(叡智)의 소산(所産)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괄호 안의 문장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규정을 못 만들어 놓아 괜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속히 그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⁴⁾

4

여기서 그동안 우리의 문장 부호 사용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쉽표의 용례를 통해 하나 보기로 하겠다. 쉽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규정이 꽤 갖추어진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교과서류에 쓰인 쉽표의 실태를 보면 차라리 쉽표를 아예 쓰지 말도록 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조차 들 정도다.

(18) ㄱ. 그래서, 생일 아침이면, 생일을 맞은 당사자는, 새 옷을 입고 옷깃을 여미고 부모님께 먼저 큰절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그 날의 행사를 시작하였다.

ㄴ. 우리는, 부모나 조상의 영혼이, 제삿날이 되면 직접 찾아오셔서, 차려 놓은 음식을 잡수신다고 생각한다. (이상 『중학 국어 3-2』, 1986년도판)

4) 사실은 『표준 국어대사전』을 편찬할 때 이 문제는 사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새 길을 만들어 놓았었다. 그런데 어떤 경위에서였는지 그것이 무위(無爲)로 돌아가고 국어연구원의 간행물이 아직까지도 교과서의 답답한 길을 따르고 있어 서글픔을 금할 길이 없다. 필자는 최근 한 서평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느끼며 세상이 바로잡히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한국의 언어』에 대한 재미 학자 김진우 교수의 서평이었는데 한글이 세종 훈자의 힘으로 창제되었다는 기술을 두고 성삼문이 중국으로 황찬을 만나러 열세 번이나 간 이야기를 들먹이며 반론을 폈던 것이다. 성삼문과 신숙주 등이 황찬을 만나러 간 것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일이고 그것은 홍무정운(洪武正韻)과 같은 운서 번역 일 때문이었음이다 알려진 마당에(‘열 세 번’도 이제 바로잡혔다) 학생 때 배웠을 법한 그 부정확한 옛날 이야기로 역사를 되돌리려 하였던 것이다. 우리 문장 부호가 바로잡히기 위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방해꾼을 만나야 될까를 생각하면 미리 기운이 빠진다.

앞의 예문에는 분명히 지나치게 쉽표가 많다. 유난히 쉽표가 많이 찍힌 특정한 부분을 애써 고른 것도 아니다.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다. 특히 한때에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류의 접속어 다음에는 무조건 쉽표를 찍어댔다. 적어도 그것은 눈에 거슬렸던지 「한글 맞춤법」에서 쉽표 규정 제9항의 예외 조항으로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쉽표의 범벅에서 받던 우리의 피로감은 한결 덜게 되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도 치밀치 못하여 우리의 피로감이 그리 산뜻하게 걷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쓰이는”의 경계가 어디인가?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의 예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혹은, 즉, 곧, 그래서’ 등 훨씬 많은 예를 제시하여 여기에서 다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었어야 할 것이다. 새 맞춤법 이후에도 가령 ‘즉’ 다음에 쉽표를 찍는 일을 많이 보는데 이를 단호하게 어느 한쪽으로 통일시킬 장치가 현재로서는 애매한 상태인 것이다. 어떻든 예문 (18)의 쉽표는 독해(讀解)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 옳은 진단일지 모른다. 실제로 그것들을 빼고 읽어 보면 한결 시원하다. 한마디로 우리 문장 부호의 쓰임이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

다음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제는 역사의 뒤켠으로 사라진 글이지만 한때는 온 국민이 아침저녁으로 읊조리던 글이다. 이 예문은 일차적으로 그 구조 자체가 모호하기 이를 데 없지만 과도한 쉽표의 사용도 그러한 모호성을 돕고 있다.

- (19)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발판으로 삼아, 창조
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국민 교육 현장」)

이 예문은 아무리 뜯어읽어도 그 정확한 구조를 알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배우고 익히며’와 ‘소질을 계발하고’가 그 뒤의 ‘발판으로 삼아’와 같은 자격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끝의 ‘정신을 기른다’와 같은 자격으로 쓰였는지를 풀 길이 없다. 즉 이 예문은 다음 (20)에 보인 세 가지의 구조 중 어떤 것으로도 분석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어느 하나로 읽어야 한다는 단정(斷定)을 내릴 수 없는(그렇게 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 한마디로 전형적인 모호성을 지닌 문장인 것이다.

(20) ㄱ.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우리의 처지를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ㄴ.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한다

(우리의 처지를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ㄷ.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우리의 처지를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만일 이 글의 필자들이 이 세 가지 가능한 구조 중 어느 하나의 구조가 자기들이 진정으로 의도한 구조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면 쉽표로 그것을 드러낼 방도는 없었을까. 가령 (20ㄱ)의 구조라면 ‘익히고’와 ‘계발하고’ 다음의 쉽표를 없애는 방도가 있을 법하지 않은가. 또 (20ㄴ)의 구조라면 적어도 ‘삼아’ 다음의 쉽표는 찍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찾을 길이 없다. 이 글이 안고 있는 모호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그만한 기초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갖추어져 있었다면), 그리고 문

장 부호의 기능에 대한 얼마간의 인식이라도 바로 갖추고 있었다면 이토록 마구잡이로 쉼표를 남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예문 첫머리의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다음의 쉼표도 왜 찍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멀리 이 글 끝의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에 걸린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사이가 너무 멀지 아니한가. 아니면 바로 다음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며’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와 ‘우리의 처지를 발판으로 삼아’를 다 꾸민다는 뜻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한다’도 그리 자연스럽게 못하지만 특히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우리의 처지를 발판으로 삼는다’는 말은 아무래도 우스꽝스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는 바로 다음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며’만 꾸민다고 보아야겠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의 구두점은 오히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들어갔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예문 (19)는 글 자체가 이미 악문(惡文)인데 거기다가 무질서한 쉼표가 그것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킨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5

반복하지만 현행 「한글 맞춤법」의 문장 보호 규정은 너무나 미흡한 상태에 있다. 한 예로 제15항의 “수의 자릿점을 나열할 때 쓴다”라는 규정만 보아도 그렇다. 그 용례로 “14,314”를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2년”이라고 적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누구도 그러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마디로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인 것이다. 영어의 경우를 보면 연도, 번지, 우편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등에는 쉼표를 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실제로 그런 데에는 천 단위를 구분하지 않는데 이들을 위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 결국 규정 따로, 현실 따로의 어설픈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제7항의 “도치된 문장에 쓴다”는 규정도 허술하기

는 마찬가지다. 국어의 정상적인 어순을 SOV어의 규칙에 따라 ‘주어-목적어-서술어’로 본다면 도치된 문장의 용례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것들에 모두 쉼표를 찍어 가령 “이 편지, 누가 썼니?”나 “이걸, 네가 가져라”처럼 일일이 쉼표를 찍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허술한 규정으로 이만큼 문자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다. 이제라도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문장 부호 규정이 하루 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물론 정밀히 다듬어진 것이어야 하고,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되도록 범언어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항(2000). 『한국의 역학(譯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민수(1984).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 안병희(2002). 신숙수의 학문과 인간. 『새국어생활』 12(3).
- 이익섭(1996). 국어 문장 부호의 기능. 『관악어문연구』 21. 『국어사랑은 나라 사랑』(1998)에 재수.
- 이희승(1959).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 신구문화사.
- 이희승·안병희(1989).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한글 맞춤법 해설』(1988). 국어연구소.
- 『한글학회 50년사』(1971). 한글학회.
- The Chicago Manual of Style*(1993). 14t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baldi, Joseph(1995).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4th ed.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 _____ (1998). *MLA Style Manual and Guide to Scholarly Publishing*.
2nd ed.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 Kane, Thomas S.(1983). *The Oxford Guide to Writing : A Rhetoric and
Handbook for College Students*.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 Gerald(1991). *The Macmillan College Handbook*.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Publication 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4th ed.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einking, James A., Andrew W. Hart and Robert von der Osten
(2002). *Strategies for Successful Writing*.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 Troyca, Lynn Quitman(1996). *Simon & Schuster Handbook for Writers*.
4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 Turabian, Kate L.(1987)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5t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